

ARE ARAMSE, SHANTI : NOV.

자... **천천히**, 평화 : **11**월호

12기 인도 뭄바이팀 월간 보고, 세 번째 이야기

11월 일정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p>30 마니쉬 생일파티</p> |  | | | | | 1 |
| 2 | 3 초록색은 보이즈홈 | 4 매주 화요일은 까마티푸라 가는 날 | 5 | 6 | 7 주사가 무서워요 | 8 |
| 9 | 10  | 11 중 | 12 간 | 13 평 | 14 가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ORD어린이 소풍 | 22 주후센터 가는 날 |
| 23 | 24 | 25 | 26 CATCH 프로그램 | 27 | 28 | 29 |

까마티푸라 마을 파티 준비

까마티푸라 커뮤니티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한국 음식 파티를 선택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자 별다른 위화감 없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파티를 하기 위해서는 파티에 올 사람을 모으는 것이 급한 일이었다. 우리는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바로 아파트 방문을 시작하였다. 아파트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가장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격한 환대에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막상 아파트 방문 때 아이들의 소음으로 주민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방문한 시간은 아이들과 남편을 직장과 학교에 보내고 난 후 부녀자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라 겸연쩍기도 했다.

우리는 또한 아파트 방문에서 전 기수 활동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묻기도 전에 쓰레기 얘기를 꺼내거나 종종 전 기수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우리는 우리가 전 기수의 커뮤니티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는 긍정적인 느낌도 받았지만, 너네 또 왔느냐, 우리는 이제 쓰레기를 안 버린다고 먼저 엄포를 하는 주민들로 인해 우리 접근에 방해를 받기도 했다.

아파트 방문에서 크게 와닿은 또 하나는 바로 문화 충돌이다. 우리는 봄베이 YMCA 밑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때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나 서구 사상에 많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이제야 문화 충돌을 겪은 듯하다. 왜 아직 결혼을 안 했느냐, 내가 결혼할 곳을 추천해주겠다라는 결혼 이야기나 점심에 Non-veg(채식주의가 아닌 다른 것) 음식을 먹었다고 욕을 들은 것 등 당황스러웠던 해프닝이 더러 있었다.

아파트 방문 때 단순히 인사만 나누려는 생각에 힌디나 마라하띠가 되는 자원활동가와 함께 하지 못한 것도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는 정말로 간단한 인사 밖에 나눌 수 없었고, 우연히 빌딩 매니저를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도 나중에는 힌디나 마라하띠가 되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조언을 받아야 했다.

12월 6일 파티가 있는 토요일 전에 초대장을 돌릴 때는 자원활동가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를 방문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파티가 될 우리의 한국음식 파티는 커뮤니티를 이해하고, 커뮤니티 안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커뮤니티 스스로가 찾고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다는 장기적인 목적 아래 그 전에 커뮤니티 사람들과 친구 같은 좋은 관계를 형성해 6개월마다 멤버가 교체되더라도 라온아띠 프로그램이 주민들과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목적이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즐기면서 이루어져야겠다.

까마티푸라 데이 케어 센터

우리는 매주 화요일마다 까마티푸라에 간다. 우리가 안데리에 이사를 온 이후에도 지하철을 타고, 기차를 타고 까마티푸라에 가는 이유는 커뮤니티에 녹아들기 위해서지만 우리는 데이 케어 센터 안의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9월달부터 11월까지 가장 오래된 시간을 함께 한 까마티푸라 아이들은 때로는 가족 같고, 때로는 천사 같은 귀염둥이들이다. 주로 놀아주는 방법은 아이들을 안아주고, 업어주고, 같이 장난 치고 하는 것들이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지만 요즘 공부 선생님인 초띠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놀이 프로그램이나 공부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확한 시간을 제안할 생각이다. 이번 달에는 손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하였다.



손을 그리다 발도 그리고
머리도 그리고 몸도 그리게 되었다.

까마티푸라 데이 케어 센터



주후 센터

어쩐 우리를 가장 편하게 하고 친구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은 주후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아닐까? 주후의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프로그램 하나를 고민하던 중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후 아이들과 놀기 위해 주후 해변으로 떠났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장난을 치다가 공이 있냐고 물었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주후해변의 모래 위에는 우리의 축구장이 그려졌다. 아이들과 함께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다 한국 노래를 불러주었고 그때부터 아이들은 인도 노래와 춤을 알려주고 우리는 한국노래를 불러주며 음악으로 웃음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한번은 주후센터 물건들이 들어있는 장롱을 정리하다 깊숙이 박혀있던 키보드를 꺼내 먼지를 털어 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키보드를 연결해 키보드를 치며 아이들에게 건반을 알려주고 노래를 불러주었다. 이렇게 자연스러움이 익숙한 주후센터 아이들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곳보다 편안함을 준다. 반면 아이들에게는 더 빨리 와라, 더 있다 가라는 아이들의 말을 더 들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만 클 뿐이다.

얼마 전 그런 고마운 아이들로부터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주후센터의 '비나약'이라는 아이가 우리가 방문하는 하루 전날 떠났다는 소식이다. 이유는 엄마를 항상 그리워해 떠났다고 한다. 어쩔 수 없었지만 인사도 못하고 떠나 보낸 그 아쉬운 느낌은 잊을 수 없고 점점 이곳을 떠날 때가 다가오는 우리도 이곳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야 할 지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친구처럼 느끼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쯤 비나약이라는 친구가 떠난 것이 허무한 슬픔으로 다가온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떠날 때는 그런 허무감이 덜 느끼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램을 갖게 되었다.

주후 센터



중간 평가

이번 달은 중간평가를 준비하고 중간평가를 치룬 뒤, 중간평가에 따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활동과 이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정돈하는데 시간을 쏟은 달이었다.

중간평가를 준비하면서 지난 두 달 간 우리가 해온 일들을 정리해볼 수 있었고 앞으로의 활동을 계획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지난 두 달을 정리하고 남은 달을 계획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많은 시간을 요했다. 다행스럽게도 디왈리라는 큰 축제기간과 겹쳐 학교가 방학을 하면서 보이즈홈이나 주후센터의 친구들이 센터에 머물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우리는 중간평가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며 준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라온아띠가 처음으로 큰 규모의 중간평가단을 계획했기도 하고, 우리도 처음 하는 평가이다보니 형식을 갖추는 데 서툰 점이 많았다. 촉박하게 중간평가단을 맞을 때 갖춰야할 형식들을 알게 되고 현수막 디자인과 PPT 디자인을 수정해야 했다. 또한 중간평가 직전에 5일 간의 캠프에 다녀왔다. 이미 알고 있는 일정이었기에 우리가 없도록 캠프 사전부터 일정을 조정하는 노력을 했지만, 캠프를 다녀온 뒤 우리는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혔고 며칠 간 누워있어야 했을 만큼 많이 아팠던 팀원도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일을 기꺼이 한 팀원들이 있어 그래도 다행이 발표 전에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중간평가 발표 직전 간사님들과의 회의에서 우리가 준비한 발표가 성과중심적이며 조금 느낀 점과 질적인 성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아 준비했던 대본을 수정하는 과정도 거쳤다. 우리의 욕심에 의한 것이라 잠을 줄이고 늦게까지 준비를 하게 된 것은 괜찮았지만, 20분이라는 발표시간에 모든 성과를 소개하려고만 하고 질적인 면들을 놓친 점에 대해서 스스로 아쉬움이 남는다.

중간 평가

직전날까지 준비하느라 부족한 점이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국민은행 사회공헌팀 김병희팀장님과 부천YMCA 김영주이사님, 한국YMCA연맹 정동민 간사님, 인도 뭄바이팀 한국코디네이터인 구미YMCA 최현욱 간사님이 멀리 한국에서부터 와서 자리를 빛내 주셨다. 뭄바이 YMCA의 많은 간사들도 자리를 빛내주었다. 뭄바이 YMCA에서도 많은 간사님들이 라온아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 우리의 발표 직전에 한국에서 온 중간평가단에게 모든 지점의 장들이 모여 인사를 나누고 뭄바이YMCA를 소개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우리 기수의 담당 코디네이터인 프록터센터장 멜빈, 주후센터장 바스커를 비롯하여 보르빌리센터의 로빈, 나비뭄바이 센터의 크리스, 콜라바센터의 아쉬쉬, 멜빈과 함께 우리에게 많은 신경을 써준 프록터센터의 라파엘, 뭄바이센트럴스튜던트센터의 저스틴은 우리의 중간평가 발표까지 자리를 지켜주셨고 발표 뒤에도 따뜻한 조언의 말씀들을 나눠주셨다.

발표를 마친 뒤 이틀에 걸쳐 중간평가단에게 우리의 활동지와 뭄바이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간평가단은 까마티푸라 데이케어센터(지역아동센터), 주후센터, 보이즈홈을 돌아보았고 보이즈홈에 함께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숙소도 살펴보았다. 인디아게이트, 타지호텔 등 인도의 명소를 돌아보고 힌두교의 큰 템플 중 하나인 할리크리슈나템플을 방문하고 그 곳에서 운영하는 채식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 또한 마지막 밤에는 헐리우드에 버금가는 큰 영화산업, 볼리우드가 자리잡고 있는 뭄바이에서 영화관에 가서 최신 볼리우드 영화, <해피뉴이어>를 보는 기회도 가지며, 중간평가를 즐겁게 마무리하였다.

중간평가를 준비하는 과정과 중간평가 자체의 과정도 의미있었지만, 중간평가 때 간사님들과의 대화 이후 우리는 새로운 방향성을 갖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중간평가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며 외부적인 문제에 집중해왔다. 그러면서 서로를 돌보는 데에 소홀한 점이 있었음을 간사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부를 돌아보고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중간평가 이후 잠시간 활동을 최소화하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으며,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중간 평가



소개합니다

*모든 분들이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



멜빈 (Melvin)

라온아띠 12기 코디네이터
봄베이 YMCA 프록터 총 담당자

그의 자연스럽게 몸에 밴 말투, 작은 행동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고 말로 표현 못할 깊은 그의 따뜻한 사람 냄새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별명: 미소천사

멜빈이 웃는 모습을 보면 다들 기분이 좋아진다. 특히 찬모씨는 이분의 모든 것을 따라 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추종자라고 할 수 있다.



바스커(Bhaskar)

라온아띠 12기 코디네이터
봄베이 YMCA 주후센터 총 담당자

처음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항상 일정과 활동의 사소한 것조차 알려고 하는 그의 전화, 문자에 부담감이 느껴졌으나 우리에게 대한 관심과 깊은 애정의 표현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를 좋아한다.

별명: 딸바보

두 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리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사람



진슨 (Jinson)

라온아띠의 동반자
봄베이 YMCA ORD 총 담당자

우리와의 만남에서 항상 많은 조언과 활동이 끝났을 때 그의 적절한 피드백은 우리가 보지 못해 놓쳤거나, 앞으로의 활동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알려준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성장을 도와준다.

별명: 소 눈망울

그의 크고 깊고 맑아 보이는 눈동자는 마치 소의 눈처럼 생겼고, 그 눈빛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진다.

소개합니다

*모든 분들이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



라파엘 (Raphael)

라온아띠의 동반자
봄베이 YMCA 프록터 행정 담당자

“너희들은 나의 좋은 친구야.” 라는 말로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반겨주고 항상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이 친구의 깊은 배려에 고마움과 감사함을 마음에 담는다.

별명: 불쌍한 라파엘

멜빈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멜빈은 항상 이 친구에게 말한다. “라파엘 너라면 (이 친구들이 부탁한 걸) 다 준비할 수 있지?” 그러면 라파엘은 “네”라고 대답하고 한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우리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 라파엘...



마니쉬 (Manish)

라온아띠의 스마일 메이커
보리빌리 YMCA의 자원봉사자

트레이드 마크인 스마일 티셔츠를 종종 입으면서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 주변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이 친구의 기분 좋은 웃음이 우리를 더 많이 웃게 만든다.

별명: 산띠의 5번째 멤버

항상 라온아띠의 활동이나 평소에도 연락을 많이 하고 지내면서 같이 붙어 다니는 일이 많은 산띠의 숨겨진 멤버
내 마니쉬
우리의 오빠, 남동생, 친구!



비디 (Vidhi)

라온아띠의 해피 바이러스
안데리 YMCA의 자원봉사자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누나(언니)처럼 살갑게 다가와준 이 친구에게 항상 따뜻함을 느낀다.

별명: 구미 최 간사님의 동생

그녀를 보고 며칠 안 되서 느꼈다. 외모부터 체형까지 정말 우리의 담당 간사님과 매우 닮았다고.

비디카
보드카를 좋아하기에.

11월의 350 PPM

산띠의 이번 달 350ppm은 장바구니 사용하기이다. 그 동안 에코백을 들고 다니면서 산 물건들을 잘 담았는데 간혹 에코백을 안 들고 다닐 때, 갑작스럽게 필요한 물건을 살 때면 일회용 비닐 봉지를 사용하는 것이 어쩔 수 없었다고는 말했지만 맘에 걸렸었다. 그래서 이번 달은 꼭 장바구니를 사용해 일회용 비닐의 사용을 줄이고자 의견이 나왔고 다들 이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바구니를 보다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생활 습관부터 기르는 실천을 실행하였다. 먼저 YMCA에서 활동을 위해서 프록터 YMCA 지점에서 준비해 준 2개의 백팩을 항상 들고 다니기로 하였다. 만약 갑작스럽게 사게 되는 물건이 있더라도 넉넉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회용 비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다음으로 중간평가 때 최현욱 간사님이 반 강제 기증(두고 가심)을 해 주신 큰 쇼핑백 가방 덕분에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구매하게 되더라도 이 쇼핑백 가방을 잘 사용하여 일회용 비닐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번 달의 350ppm은 그 동안의 에코백 사용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일회용 비닐의 사용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몸에 베이게 된 상당히 일상적인 캠페인이었다.

산띠의 지난 350 PPM 잘 지켰나 못 지켰나

산띠는 지금까지 환경을 생각하고 자원을 절약하여 350ppm을 낮추기 위해 텀블러 사용하기, 손수건 사용하기, 계단 사용하기, 전기 아끼기(안쓰는 콘센트 및 전깃불 끄기), 물 받아서 사용하기, 에어컨 사용하지 않기, 소프 선데이(비누 이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는 일요일),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총 8개의 약속을 하였다. 많은 약속을 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 즉, 약속한 일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성을 깨달았고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았다. 8개 중에 대부분은 지켜지고 있으나 잘 실천 되지 않는 3가지에 대해서 공통 이야기가 나왔다.

텀블러 사용하기는 각자 개별적으로 개인 물병으로 사용을 잘하고 있었다. 밖에서 파는 생수를 먹거나 물을 마시는데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아 잘 지켜지고 있었다. 하지만 밖에서 음료수를 마실 때는 텀블러에 음료수를 먹고 난 뒤 남아 있는 냄새나 끈적거림이 싫어서 종종 일회용컵을 사용하였다.

손수건 사용하기는 항상 손수건을 들고 다니면서 땀이 날 때는 닦는 용도로 잘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난 뒤에는 손수건에 음식물을 묻히기 싫고, 음식물이 묻은 손수건을 씻을 공간이 없는 곳이 많아서 식당에서 나눠주는 일회용 티슈를 자주 이용하였다.

전기 아끼기는 지역 훈련 때부터 해왔으나 완벽하게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종종 거실에 있는 불을 끄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TV를 보고 난 뒤 TV 콘센트를 빼지 않고 그대로 꽂아두고, 화장실 불을 끄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러 가는 일이 있었다. 지켜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을 때, 전기를 아끼는 생활 습관이 몸에 베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모두 공통으로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위의 잘 실천되지 않고 있는 3가지인 텀블러, 손수건 사용 그리고 전기 아끼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같이 모여서 찾아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

<관계>

중간평가 이후 잊고 있었던 혹은 다소 무감각해있던 산띠 내부 관계에 대해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빛(로샨), 삶(지야), 달(찬드), 행복(쿠시)에게 이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았을 때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쓴 것 같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스스로 많이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상대방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는 더 이상 그 상대에게 아무런 감정을 품지 않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과 맞지 않는 나와서 가치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갈등에 힘들어지고, 서로의 방식, 서로의 가치관을 주장하게 되면서 계속되는 신경전으로 서로를 지치게 만든다. 반대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면, 처음의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끝까지 관계를 맺으면 좋지만, 좋아하는 감정들이 커질수록 상대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는데, 만약 상대에게서 그 동안 내가 바랬던 기대가 더는 보이지 않게 되면 홀로 실망을 하게 되고, 동시에 혼자 상처를 받아 그 동안의 상대에 대한 모든 노력의 끈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감정에 치우쳐서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좁은 시야가 만들어낸 편견이 그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모든 감정을 배제하고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관련된 상대를 계속 바라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나는 감정을 배제하고 그 상대의 행동, 말, 습관 등을 보고, 상대를 더 알아가는 데에 집중을 하고자 한다.



중간평가 이후 관계와 자아라는 단어가 우리 몸과 마음을 움아매었다. 하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으리라. 12월, 그리고 1월. 우리에게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관계>

중간평가 이후 잊고 있었던 혹은 다소 무감각해있던 산띠 내부 관계에 대해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빛(로산), 삶(지야), 달(찬드), 행복(쿠시)에게 이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



모든 것들은 쉽게 판단할 수 없기에 나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나도 잘 알지만 함께 24시간을 4개월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 같이 감정적인 사람이,
감정을 숨기는 게... 될 리가 없다.
그래서 그저 감사할 뿐. 툭툭 거리지만 사실 감사하고 있다.



눈을 감고 있던 나를 볼 수 있었고 오히려 고백으로 마음이 가벼워진 나를 볼 수 있었다.

<힌디 수업>

11월은 산띠의 요구로 계속해서 진행하게 된 힂디 수업을 중간평가와 갑작스러운 일정 등으로 인해 수업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축소시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로산

인도의 영어를 못하는 어린 아이들, 어른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짧고 서투른 힂디어지만 인사, 고마움 등의 간단한 힂디어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 곳 사람들의 웃는 표정을 볼 수 있다. 아마 외국인이 자기 나라의 말을 한다는 것에 자기와의 거리감이 줄어들고, 이 곳 인도를 이해해 가는 것을 알리는 가장 빠른 것이 힂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지야

여러가지 이유로 강의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강의하는 요일에 상관없이, 힂디 이외의 것들 까지 흔쾌히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나시마선생님. 28개의 언어가 있는 이곳에서 인도인이라고 모두다 힂디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마하슈트라 주에 살다보니 오로지 마하라띠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힂디어에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나, CFES 아웃리치를 다니면서 그나마 내가 아는 짧은 힂디가 내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언어의 장벽과 경제적 장벽이 묘하게 겹치는 이곳에서 힂디공부는 내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워지는 길이었다.

쿠시

빡빡 우겨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해야 한다고 했던 힂디 수업이지만 막상 11월은 거의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9월달에 열심히 배웠던 힂디들도 다 까먹어버렸다. 어쨌든 언어를 배우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특히 이 곳의 향기가 나는 단어들. 아레(Are)라는 말은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인도 사람들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자주 쓰는 말인데, 나는 요즘 이 말에 취해 있다. 아레 엉클! 아레 아람세(천천히 합시다)!

찬드

사실 이제 나에게는 힂디 수업은 힂디를 잘 쓰기 위함이라고 하기 보다는 하나의 문화를 배운다는 의미가 더 크다. 인도에 와서 그들의 문화를 정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화인 힂디어로 다가갈 시 그들은 언제나 미소로 우리를 반겨준다. 이것이 내가 힂디 수업을 잡고 있는 이유다.

<튼튼 체크>

당연한 규칙을 빼고 정말 지키기 힘든 규칙만 넣기로 한 산띠 규칙 안에는 5개월을 건강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일주일에 2번 30분 이상 운동하기' 규칙이 있다. 하지만 인도에서 9월과 10월, 이 두 달간 규칙을 지키기 힘들었고, 강제로 같은 시간을 정해 하기에 어려웠다. 고민 끝에 산띠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붙여놓고 양심에 맞게 자유롭게 건강을 지켰다. 한 달을 해본 산띠의 소감은 어떨까?

로산

귀찮아서 건너 뛸 수도 있었던 운동 및 체력 관리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튼튼체크의 빈칸을 다 채우기를 노력하고, 튼튼체크의 빈칸 채우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건강관리에 힘쓰는데 노력하겠다.



지야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막상 하면 좋아하기도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즐기지 않는데 튼튼체크의 아이디어 덕분에 그래도 이번 달은 운동을 했다. 다가오는 뭄바이의 겨울, 또 한 번 가게 될 캠프, 운동 열심히 해서 나도 친구들도 다들 잘 이겨냅시다!

쿠시

튼튼 체크는 재미 있다. 내가 운동을 하긴 했구나 새삼 부듯하기도 하다. 12월에는 예쁜 그림을 그려 넣고 싶다.

찬드

이번 달은 첫 주에 한 번 크게 아파서 더더욱 몸 관리에 신경을 썼다. 운동을 한 것도 기분이 좋지만 끝난 후 체크리스트가 그림으로 채워져 부듯함까지 느낄 수 있었다.

그 외 활동



봄베이 YMCA 마하라슈트라 주 체육대회



CATCH 프로그램 (Coordinated Approach to Child Health)

시카고 YMCA에서 아이와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은가에 대한 강연을 하러 뭄바이에 와서 우리는 우연히 좋은 기회를 잡게 되었다. ☺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야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었다.



마니쉬 생일파티



마니쉬는 생일이 있는 일요일 우리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다.

우리는 마니쉬의 집에 가인도인들이 평소에 먹는 다양한 음식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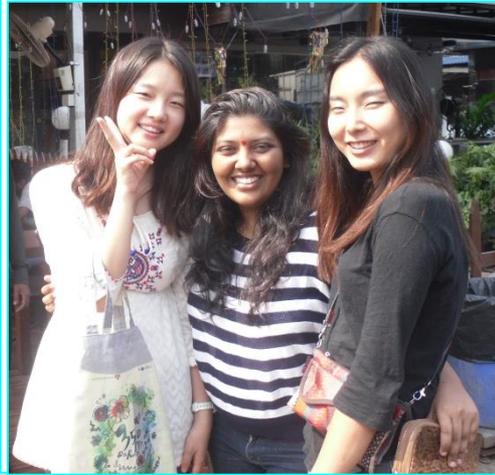
마니쉬 가족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

그 외 에피소드

죽 먹는 찬드



회의쟁이들



딤띠와의 데이트



크림 파스타 만들어 먹은 날

이 달의 사진

바뀔 듯 안 바뀔 듯 온도는 조금 뜨거워진? / 찬드



등에 새겨진 라온아띠의 의미를 생각해보다 / 로산

이 달의 사진



지금 제 심정은... / 지야



멀리서 보면 예쁘다. / 쿠시



산띠의 11월 개인 에세이

11월, 그리고 쿠시

세상 많은 어려운 것들 중 하나는 사람 사이의 관계이다. 관계에 그만큼 스트레스 받고 내 자신을 잘 가꾸고 싶어했던 올해의 나와 그런 내게 주어진 라온아띠 12기라는 기회.

그러나 라온아띠는 다시 한 번 더 관계에 집중해서 관계 속에서, 팀 속에서 나를 바라보길 가르쳤다. 나는 많이 혼란스러워 했다. 다시 내가 그토록 지켜온 관계에 집중하는 것을 시간 아깝게 여겨야 할 지, 기회로 여겨야 할지에 대해서.

11월의 반은 길고 긴 터널이었다. 그 터널에서 나는 주저앉을 뻔 했다.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도 주저앉히려고 한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은 거짓말처럼 괜찮다. 도저히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생활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보인다. 나빠 보이기만 했던 그 사람의 순수한 의도가 보이고, 이 곳에서는 없을 것 같았던 관계 말고 다른 중요한 측면들도 보이고, 사랑 받고 싶어하는 나로 인해 아파했을 그 사람이 내게 사랑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타인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비난은 나의 인간성의 문제로 돌아온다는 사실 등 여러 가지들을 실수와 아픔 속에서 배웠다.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은 작은 관점에 불과하기에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정당한 시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의 말처럼 나는 빛을 통해서 볼 뿐,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살아야 내가 안전할 것 같지만, 정작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더 울먹일 가능성이 많겠구나 하는 사실도 배워간다. 더 이상 그 사람이 나를 왜 알아주지 않을까에 대한 갖난아기 같은 생각은 그만 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차려야 한다. 이상하지만 그게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여전히, 많은 실수들을 예약하고 예비해두고 있다. 그래도 이제는 이곳에서 행복할 것이다.



11월, 그리고 쿠시

행복한 사람도 늘 행복하지는 않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변화무쌍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삶에는 한없이 감사할 가치가 있다.

인생치유 - 댄 베이커, 캐머런 스타우스

11월, 그리고 쿠시



11월, 그리고 찬드

저녁을 먹은 후 잠시 보이즈 홈 아이들과 농구하는 사람들을 보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나에게 내가 농구하는 것을 보고 싶다며 지금 코트에 있는 사람들과 농구하러 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당시 바쁘고 내가 농구를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미안하다 내일 하겠다라는 말을 매일 반복하며 지나갔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내가 그 대답을 하자 내일, 내일, 내일이라고만 한다고 말하며 한 아이가 휘! 가버린 적이 있었다. 나도 진심으로 농구를 하고 싶지만 할게 많아서 그런데... 팀원들이 일하는데 나만 운동할 수 없는데... 억울했다. 나는 여기서 뭘 하는 것일까? 매일 함께 살아가며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는 61명의 남자아이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건가? 반대로 그들에게 나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당장 나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보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회의, 보고서가 중요한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11월은 그 어느 달 보다 가장 짧게 느껴진, 하지만 한편으로 가장 굶었던 달이었다. 중간평가를 통해 현지 코디네이터들에게 우리의 활동과 자세에 대하여 과분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반면 한국 코디네이터를 통해 우리의 관계에 대해 따끔하게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 절반을 넘긴 이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9월부터 중간평가 이전 보다 중간평가가 끝난 뒤 지금까지가 가장 정면으로 서로를 바라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암묵적 동의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서로를 건들지 않는 쪽을 선택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런지조차 볼 수 없었다. 그리고 활동에만 전념하고 어쩔 누군가는 혹은 내가 그 활동에 만족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역시나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11월, 그리고 찬드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하나하나 놓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을 위해 천천히 가고 있다. 시간이 날 때 혹은 팀원들과 조율을 통해 아이들이 농구를 볼 수 있는 시간에 나가 농구를 하러 나갔다. 부끄럽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 나는 한순간에 주목을 받는다. 분명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은 아닌데 아이들은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하던 단체로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해준다. 반면 나는 언제나 "짠 바이야~! 짠 바이야~!(찬드 형~!)"를 외치는 61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아직도 다 외우지 못했다. 좀 더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며 같이 농구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 간단한 것이, 쉽다면 이렇게 쉬운 것이 왜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다. 나를 보고 나의 주변을 살피는 연습은 언제나 나의 과제로 남는다. 이 과제는 내가 만나는 아이들보다 더 가까운, 현재 나의 가족인 나의 팀원들 이야기로 이어진다. 우리는 다시 그 어떤 날 보다도 지치고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중간평가 이후 일정을 취소해가며 촛불을 키고 자기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지금은 매일 밤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주제 나눔과 기존 나눔을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11월에 미루어오며 하고자 했던 무언가에 대한 열정을 다시 쏟아내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손가락이 아닌 가르키는 곳을 봐야 하는 나는 보이지 않는 곳을 어딘가를 보며 천천히 걸어가고 한다. 우리팀은 지금 제 2의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더 나아가 태국, 필리핀, 미얀마, 동티모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에 나가있는 우리 모두는 국내훈련이 종료됨과 동시에 활동을 하러 온 것이 아닌 라온아띠가 되기 위한 훈련과정 중에 있다. 간혹 나태해지는 나를 보며 지금 또한 훈련과정 중임을 잊지 않으려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코디네이터인 멜빈이 우리에게 준 글자를 소개한다.

Together
Everybody
Achieve
More

11월, 그리고 찬드



11월, 그리고 지야



타인의 아름다움에서만
위안이 있다. 타인의
음악에서만 타인의 시에서만,
타인들에게서만 구원이 있다.
고독이 아편처럼 달콤하다 해도,
타인들은 지옥이 아니다.
꿈으로 깨끗이 씻긴 아침
그들의 이마를 바라보면,
나는 왜 어떤 단어를 쓸지 고민하는 것이라.
너라고 할지, 그라고 할지,
모든 그는 어떤 너의 배신자일 뿐인데, 그러나 그 대신
서늘한 대화가 충실히 기다리고 있는 건
타인의 시에서뿐이다.

타인의 아름다움에서만 - Adam Zagajewski

11월, 그리고 지야



그럴 수 있다면 정녕 그럴 수만 있다면
갓난아기로 돌아가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왜 없으리
삶은 저 혼자서
늘 다음의 파도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가던 길 돌아서지 말아야겠지
그동안 떠돈 세월의 조각들
여기저기
빨래처럼 펄럭이누나

가난할 때는 눈물마저 모자랐다

어느 밤은
사위어가는 화투불에 추운 등 꼬이다가
허허롭게 돌아서서 가슴 쪼였다
또 어느 밤은
그저 어둠 속 온몸 다 얼어들며
덜덜덜 떨어다

수많은 내일들 오늘이 될 때마다
나는 곧잘 뒷자리의 손님이었다
저물녘 산들은 첩첩하고
가야 할 길
온 길보다 아득하더라

바람 불더라
바람 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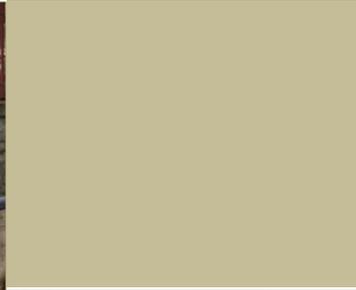
슬픔은 끝까지 팔고 사는 것이 아닐진대
저만치
등불 하나
그렇게 슬퍼하라

두고 온 것 무엇이 있으리요만
무엇인가
두고 온 듯
머물던 자리를 어서어서 털고 일어선다
물안개 걷히는 서해안 태안반도 끄트머리쯤인가

그것이 어느 시절 울부짖었던 넋인가 시인가

두고 온 시 - 고은

11월, 그리고 지야



11월, 그리고 로산

인도에서 3개월의 시간이 흘러간다. 한국은 종종 많은 눈으로 인해서 매일 아침 출근 전쟁으로 복잡하다고 들은 반면에, 여기 인도는 선선한 날씨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는 교통 체증으로 혼잡한 도시만이 가지는 도시 그 특유의 모습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과의 관계는 크게 더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한 명씩, 한 명씩 옆에 다가가 그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꿈이 있는 지 등을 아주 가까이에서 귀 기울여 듣고 있다. 비록 나의 말과 느낌이 그 아이에게 잘 전달될 수 없다는 한계를 알지만, 잠깐이라도 그 시간이 헛되게 보내지 않게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고 있다.

제 3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이제 2달도 남지 않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더라는 것을 알기에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들이 나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이들은 나에게 여전히 같은 웃음으로, 한결 같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와 주고 있다. 아이들에게 얽매이는 구속감은 나와 아이들 사이에 그 동안 많은 정이 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들과의 다음은 기약할 수 없음을 또한 잘 알기에 지금의 시간에 더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라도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선에서 아낌 없이 주고 아이들이 기쁘게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뿐이다.

11월, 그리고 로산

지난 두 달이 나를 아주 조금은 성장하게 만든 긍정적으로 보는 달이었다면, 이번 11월은 앞의 달들보다 힘들게 보내서 아이들과 나 이외의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나의 행동, 움직임을 저조하게 만든 달인 것 같다. 중간 평가를 받기 전에 이전의 준비 과정에서는 중간평가와 월간 보고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해서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었고, 중간 평가 이후로는 간사님들의 평가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힘이 들고 지쳐 있었다. 간사님의 평가 중에서 “너에게 있어서 라온아띠는 무엇이야?”는 이 말 속에 담긴 많은 의미심장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였다. 라온아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부터, 라온아띠의 범주가 어디부터이고 어디까지인지, 나는 라온아띠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였다. 라온아띠라는 의미가 나에게 정말 크게 다가왔었고,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나의 감정들을 제대로 조절하면서 정리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꽤 긴 시간 속에서 최소한의 일정을 따라가는 것 외에 나만을 위한 개인의 시간은 죽어 가고 있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갈피를 못 잡고 머릿속에서 맴도는 말과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들로 인해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힘들어 하고 있었다. 지금은 전보다 힘든 강도는 약해졌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들 속에서 나의 생각과 고민들은 여전히 나에게 풀어야 하지만 풀지를 못하고 있는 과제로 남아 있을 것 같다.

정말 많이 힘들 때마다 들었을 때, 나의 생각을 잠시라도 가볍게 해 준 노래를 소개하면서, 나의 엉망진창인 마음을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처럼 11월에 도저히 정리가 안 되는 복잡한 마음인 개인 소감을 마친다. 그리고 다음에는 좀 더 나은 개인 소감을 적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그저 바란다.

비록 캄캄한 어둠일지라도
빛 한줄기 보이지 않아도
너와 함께 간다면
그대 나와 함께 간다면

저 잔에 담긴 물처럼 나 그렇게 나의 안에 담겨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잔에 담긴 물처럼 - 박솔

11월, 그리고 로산





12월에 만나요.